

공사장 된 광주 도심 곳곳 '화물차 공포'

28군데 도로서 공사중...운전자들 대형차량 사이 아슬아슬 주행 을 화물차 교통사고 늘고 출퇴근길 혼잡 유발...시민들 '불안불안'

7일 오전 출퇴근길, 광주시 동구 살례시오거리 입구 사거리. 지하철 공사로 편도 4차로 도로가 2차로로 바뀐데다, 가림막 등이 설치되면서 환층 좁아진 도로를 대형 트레일러가 서행하면서 출퇴근 차량 정체를 부추겼다. 3일 오전 출퇴근길, 광주시 남구 양림동 휴먼시아아파트 앞 고가차도 인근 도로도 지하철 공사장으로 진입하려고 한 개 차로를 차지한 채 정착중인 25t 대형 카고트럭 때문에 다른 승용차들이 나머지 차로에 몰리며 체증 현상이 빚어졌다.

"출근시간에 화물차가 비좁은 도로에 주정차하면서 교통 흐름을 막고 있는데 경찰은 신경도 쓰지 않아요. 지하철 공사 때문에 가뜰이나 좁은데 출퇴근 시간은 피했으면 좋을 텐데..." 매일 출퇴근길, 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 A(48·광주시 서구 풍암동)씨의 하소연이다.

광주 도심 도로 곳곳이 공사장으로 변하면서 공사 현장을 오가는 덤프트럭, 중장비를 실은 트레일러, 레미콘 차량들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공사 현장에 진입하기 위해 인근 도로 한 개 차로를 점령하듯 무더기로 정차하면서 다른 차량들의 이동을 막아 교통 정체를 빚어지게 하는 경우가 잦아 지고 있다. 한 개 차로에 정차한 대형 차량과 펜스가 둘러쳐진 공사 현장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면서 불안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다.

8일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 시작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도 현재 도심 28곳 도로가 파헤쳐진 상태다.

2호선 1단계 구간(17km) 중 공사 진행 구간은 6km밖에 안되지만 6개 공구로 나뉜 28개 현장에서 굴착 공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다보니 병목

현상이 매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주요 간선도로와 연결된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등이 진행되는 곳도 많아 교통 체증을 부추기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사 현장을 오가는 화물차·트레일러·굴착기·카고트럭·레미콘 차량들의 무질서한 운전 행태가 차량 흐름을 막거나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남구 백운교차로 주변의 경우 최근까지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 진입하려는 화물차·레미콘 차량들이 한 개 차선에 무더기로 정착하고 머무르면서 일대 교통 체증을 유발하기도 했다.

북구 중흥동 동부교육지원청과 효동초등학교 인근 도로도 비슷한 상황이다. 왕복 2차선 도로에 인

접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오가는 덤프트럭과 출퇴근 차량이 뒤섞이면서 매일 심각한 지체가 빚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 일대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경찰이나 모범운전자 등의 교통 지도가 절실하다.

광주 도심 도로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사 현장을 오가는 대형 화물트럭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발생한 건설기계·덤프트럭·레미콘 등 차량 사고는 52건으로 전년도 사고(46건)를 넘어선 상태다.

지난달 17일 8.5t 화물차가 광주시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을 치어 1명이 숨졌고 지난달 16일에는 25t 덤프트럭이 광주시 남구 백운교차로 인근 공사장에 진입하려다 8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등을 우려,

아파트와 주택가,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밤샘 주차하는 화물차들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진 점도 화물차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코로나 확산으로 예년 보다 화물차 운행 횟수가 절반 가량 줄면서 도심 곳곳에 세워놓는 차량이 늘었지만 계도 위주로 이뤄지다보니 도심 화물차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도로가 공사장으로 변하면서 펜스가 곳곳에 둘러쳐져 차선이 비좁아진데다, 몸집이 큰 화물차량들의 통행까지 빈번해지면서 일대를 오가는 운전자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교통문화연수원 관계자는 "공사현장이 많아지면서 늘어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사현장 도로변에 주정차한 채 교통 흐름을 막는 화물차에 대한 적극적인 교통 지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가로수 월동 준비 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일곡동 일대 도로 옆 화단에서 북구청 공원녹지과 도시녹화팀 직원들이 겨울철 제설제로 인한 가로수 동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빗짐으로 된 바람막이 거직을 설치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 10시간 지나 다음날 출석 알고 보니 북부경찰 경위

지난 7일 밤 10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양산동 OB맥주공장 후문 도로앞, SUV가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 50여m앞에서 멈춰선 뒤 유턴해 달아났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순찰차로 뒤쫓아가 차량을 세웠고 운전자를 붙잡아 태운 뒤 음주단속용 승합차로 데려갔다. 운전자는 경찰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현장에 있던 경찰 10여명을 피해 뛰어 달아났다.

다음날, 10시간 뒤에 북부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운전자는 광주 북부경찰 소속 A 경위였다. A 경위는 음주 운전자를 붙잡았지만 도주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단속 현장에 있던 경찰만 15명이지만 A 경위를 붙잡지 못했다.

경찰은 A 경위 음주운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A 경위 동선과 카드내역 등을 조사중이다. 일각에서는 A 경위의 음주 여부 뿐 아니라 현장 경찰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감찰도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택시서 흡연한 친구 폭행 치사 4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선고

택시에서 흡연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징역 12년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8일 상해치사 혐의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두환도 불복 항소...법정서 다시 본다

전씨측 재판부 관할 이전 재검토

전두환(89)씨가 1심에서 사자명예훼손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불복, 항소했다.

전씨 측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7일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항소 이유와 관련,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들어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전씨 측은 사실오인의 경우 ▲1980년 5월21일 헬기사격 ▲5월27일 헬기사격 ▲헬기사격의 미필적 인식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5월 21일 헬기사격과 관련, 증인들 증언만으로 헬기사격을 인정하면서 객관적·구체적인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5월 27일 헬기사격도 당시 헬기조종사들의 전일빌딩 인근 비행 불가 입장 등을 배제하는 등 과학적 검증 없이 국과수 검증 결과만을 가지

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씨가 미필적오인이나 헬기사격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헬기사격의 존재 여부를 물렸다고 하는데, 관련 서류도 없다는 점에서 미필적 인식 여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씨측은 재판부 관할 이전 문제와 사자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해서도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는 "항소를 포기하고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 하는 지 고민하다 검찰이 먼저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했다"면서 "항소심의 관할 이전 여부도 재검토할 예정"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광주지검은 '1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주운 카드로 21만원 썼다가 '벌금 700만원'

열흘새 카드 4장 주웠는데... 합의·반성에도 벌금형론 중형 일각에선 '형량이 세다' 반응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절도, 점유이탈물형명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다른 사람의 신용·체크카드 4장을 주워 10여 차례에 걸쳐 물건을 사거나 음식물 등을 구입하는 등 21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비슷한 시

기, 5만원 상당의 새우 2kg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체 피해금액을 모두 합해도 30만원이 못 된다. 벌금형 액수만 놓고 보면 남의 카드를 주워 20만원 상당을 쓰고 5만원짜리 새우를 훔쳤다가 25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된 셈인데,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했고 생계형 범죄인 점을 감경 요소로 감안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형량이 세다'는

반응이 흘러나온다. 재판부가 'A씨의 정신질환이 해당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까지 양형에 참작했다는 점에서 '중형'으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단기간에 길을 가다 남의 신용·체크카드를 여러 번 훔치는 게 가능하나"면서 "절도죄로 의심할 여지가 있지만 경찰이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길에 있는 신용카드를 가져가면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혐의가 적용되는데,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흥국화재 | 삼성생명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 AIG | 하나손해보험 | NH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